

스포츠

개 관	357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358
2015 WBSC 프리미어 12	361
프로경기·기타 경기	
프로축구	362
프로야구	363
프로농구	365
프로배구	367
프로골프	368
바둑	371
등산	372
제96회 전국체육대회	373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77
종목별 경기	379

2016
연합연감

스포츠

개관

2015년 한국 스포츠는 도박·승부조작·뒤통 등으로 얼룩 지면서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한해로 기억됐다.

프로야구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 주축 투수인 임창용, 안지만, 윤성환과 일본에서 활약한 투수 오승환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오점을 남겼다. 프로축구에서는 심판이 특정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로농구에서도 국가대표 출신 김선형(SK) 등 일부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을 비롯한 20경기 출전 금지 등 징계를 받아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또한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창진 전 감독은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라는 징계를 받아 사실상 프로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은 우울한 한국 스포츠에 청량제 역할을 해줬다.

미국 프로여자골프(LPGA)에서 맹활약한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및 한국인 2호 명예의 전당 입회는 박수를 받을 만한 소식이었다.

박인비는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이후 5개 메이저대회 중 4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금자탑을 쌓았다. 아울러 2015년 LPGA 투어 평균 타수 1위에 오르면서 LPGA 명예의 전당 가입 요건인 포인트 27점을 모두 채웠다.

5승을 달성한 박인비를 비롯해 태극남자들은 2015년 LPGA 투어에서 단일시즌으로는 최다인 총 14승을 합작했다.



▲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골프여제' 박인비(KB금융그룹)가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를 하루 앞둔 8월 6일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스윙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 행정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대통합 추진이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체육 행정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통과함에 따라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 3월까지 양 단체를 통합해야 한다.

프로야구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2001년 우승 이후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삼성의 통합우승 5연패를 좌절시킨 것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초보 사령탑 김태형 감독이 지휘한 두산은 정규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에 이어 정규리그 5연패를 이룬 리그 최강 삼성을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제압하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반면 삼성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은 투수 3명을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전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맥없이 주저앉았다.

한국야구가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의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체라는 평가에도 세계 1위 일본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야구중가' 미국마저 제압하고 초대 챔피언이 됐다.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를 앞세운 한국 선수들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전 러시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성공적인 데뷔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KBO리그 4년 연속 홈런왕 박병호는 이적료 성격의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금액 1천285만 달러를 빅센에 안기고 4년간 보장 연봉 1천200만 달러(약 141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미네소타에 입단했다.

박병호에 이어 두산과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각각 한·일 프로야구 정상에 올려놓은 외야수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 내야수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뤘다. 손아섭과 황재균(이상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 비록 포스팅에 응찰한 구단이 없어 고개를 숙였지만, 2015년에는 유난히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린 선수가 많았다.

이는 201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강정호의 성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강정호는 무릎과 정강이뼈 등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할 때까지 126경기에 나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의 좋은 성적을 남겼다.

수영스타 박태환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은 1·동 5개)도 박탈당한 일도 벌어졌다. 박태환은 현행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는 2016년 3월 2일 FINA의 자격정지 징계가 풀려도 3년 동안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7월에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금 47·은 32·동 29개(총 108개)의 메달을 획득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까지 차지했다.

김국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남자 육상 100m를 10초16에 뛰여 자신이 가진 한국 기록(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기는 경사를 맞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와 부패 추문이 확산되자 세계축구계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회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또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K리그 클래식 2연패와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등도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밖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지도 아래 2015년 16승3무1패의 압도적 성적을 거둔 축구대표팀과 수원FC의 K리그 클래식 승격 등도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 7. 3 ~ 14)

■ 역대 최대 규모 개최...사상 첫 종합 우승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열린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와 함께 사상 첫 종합 우승이라는 성적표를 꺼내들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 7월 3일 오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북한의 불참과 개최 당시 기승을 부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대회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유니버시아드 사상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했다.

한국 선수단이 대회 12일간 획득한 메달은 금 47·은 32·동 29개(총 108개)로, 금메달 수나 총 메달 개수로도 이전 대회를 크게 능가했다.

일부 인기 있는 경기에만 관심이 몰리고 다른 경기장은 쓸려간 모습을 보여 흥행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지

연합뉴스 선정 2015년 스포츠 10대 뉴스

- ① 스포츠계 도박·뒷돈 등 각종 비리로 몸살 (310점)
- ② 박인비, 커리어그랜드슬램·한국인 2호 명예의 전당 입회 (252점)
- ③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대통합 추진 (222점)
- ④ 프로야구 두산 14년만의 KS 우승...삼성 통합우승 5연패 좌절 (220점)
- ⑤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초대 우승 (202점)
- ⑥ 박병호 등 메이저리그 도전 러시...강정호 성공 데뷔 (179점)
- ⑦ 약물복용 박태환,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 (157점)
- ⑧ 광주 하계U대회 성공 개최...사상 첫 종합우승 (138점)
- ⑨ 김국영,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달성...10초16 (119점)
- ⑩ FIFA 부패 스캔들...정몽준 회장 징계 논란 (118점)